

교회여성연합, '농업현실' 주제발표회

이농현상으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농촌의 중요한 노동인력으로 자리잡은 40~50대 여성농민들이 말하는 농촌의 현실과 그들이 느끼는 농업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.

교회여성연합회(회장 조화순)는 8일 오전 10시 구세군 서대문영문 소강당에서 '수입 개방과 교회여성의 과제'라는

%를 차지했다. 아픈 곳은 허리가 32%로 가장 많고, 무릎 16.6%, 다리 13.5%, 머리 10.8%, 어깨 5.8% 등의 차례였다.

'몸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'는 물음에 대해선 64.7%가 '일을 너무 많이 해서', 20.8%가 '산후 몸조리를 잘못해서'라고 답해 무려 85.5%의 농촌여성이 과중한 노동이나 임신·출산과 관련해 몸이

또한 농촌마다 요즘 추곡수매가 한창이지만 수매현장에서 받은 돈을 비료값·품삿으로 거의 떼어준 농촌여성들이 "나랏판 돈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봤으면 좋겠소." "나랏금 높으면 남는 것이나마 있으련만..." "아이들 공부하고 싶은 데까지 갈 수 있게 돈이 남아야제..." 하는 한숨 토하는 소리에 귀기울여 "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"고 김씨는 주장한다.

'추곡수매값' 못지 않게 요즘 농민들이 신경쓰는 문제는 'U

새벽닭보다 일찍...부엌이보다 늦게...

농촌여성 중노동에 시달린다

모내기철 가사노동의 평균 15시간이나

주제로 △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농촌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농촌여성문제 등을 제기한다.

주제발표를 맡은 김금순 기독교농민회 여성위원회 전북 간사는 농촌 여성의 생활은 한마디로 "새벽닭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이보다 늦게 잘 정도로 일에 파묻혀 지내는 날의 연속"이라고 말한다.

해가 저물어 땅이 안보일 때까지 논밭에서 일하는 농촌여성들이 "밤에 잘 때면 온 몸이 쭈시고 아파 다음날 아침엔 못 일어날 것 같아도 한숨 자면 괜찮습니다. 금개 일해 먹고 살지라"하는 말은 "농촌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"이라고 김씨는 지적한다.

농촌여성들의 과중한 노동현실은 순창농민상담소가 최근 조사 발표한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.

조사 결과 농촌여성들의 모내기철 노동시간은 가사노동을 제외하고는 평균 15시간이나 된다. 조사대상자 5백65명 가운데 '몸에 아픈 곳이 있다'는 농촌여성은 5백18명으로 91.7



농촌여성들은 모내기철에는 가사노동을 제외하고도 평균 15시간이나 일하는 등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.

아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김씨가 순창지역의 여성농민들을 직접 면접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의 40~70대 여성들은 늘 온몸이 쭈시고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 '내 몸뚱아리가 아닌 것 같다'고 호소하고 있어 "여성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정부 당국과 여성단체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"라고 김씨는 지적한다.

R 현상과 관련한 농산물수입 개방'이다.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쌀·고추·배추 같은 작물은 수입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.

그래서 여성농민들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"촌사람들은 전부 거렁뱅이가 될 거"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.